

포룡정을 활용한 공연장 등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이 인 배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선임연구위원
iblee@cni.re.kr

본 연구는 부여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궁남지와 연못의 중앙에 위치한 포룡정을 활용한 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공연장의 개념 및 형태와 운영사례 분석을 통하여 포룡정 공연장의 구성과 운영방안, 공연장 조성의 타당성과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의 정의와 형태
2. 전통공연장의 설립 및 운영사례
3. 부여포룡정 현황과 공연장 조성계획
4. 포룡정 전통공연장 조성 및 운영방안
5. 포룡정 공연장 타당성 및 효과

요약

- 궁남지는 부여읍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 별궁 연못으로 연못의 중앙에 작은 섬이 있고, 여기에 있는 정자 이름이 포룡정임. 부여군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궁남지에 포룡정 공연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
- 이러한 궁남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과 아름다운 연꽃지와 수양버드나무 등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형태의 공연장을 조성할 수 있는 무대조성의 기술과 공연장 관리 운영을 위한 수익 및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가 필요함
- 부여 포룡정의 전통공연장 조성을 위해서는 궁남지 경관 및 문화재 보존의 조화방안, 관광객 유치 및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무대의 기술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기준자료와 지침 등을 제시하였음
- 포룡정 공연장의 타당성과 효과에 있어서는 경제적 타당성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공연장의 중요성과 타 공연장의 경제성 분석사례로 예시하였음. 사회·문화적 타당성으로는 공공재적 가치와 도시문화적 가치의 효과와 정책적 타당성으로는 공연장의 현대적 기능과 공연장 산업의 가치사슬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에 파급효과를 기존 연구자료를 통하여 부여군에 적용하였음
- 부여군의 포룡정 공연장 조성사업은 1단계로 기존의 포룡정과 주변의 광장을 이용한 퍼포먼스형의 부정기공연을 통하여 관광객의 관람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연구를 통한 2단계로 무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01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의 정의와 형태

1.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의 정의

- 전용공연장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을 살펴보면, 전통공연장은 전통예술만을 시연하는 공연장이 될 것임. 이러한 전통예술 전용공연장도 공연의 프로그래밍과 운영방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전통무용, 국악, 연희, 창극 등의 전통예술의 여러 갈래들을 전문적으로 심도 깊게 공연하는 세분화된 장르별 전용공연장이 존재할 수 있음.
 - 둘째, 원형보존을 위한 공연장이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입주시켜 전수교육, 일반인 강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종목의 예능단체가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교육과 강습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
 - 셋째, 특수목적을 위한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이 있을 수 있음. 전통예술의 현대적 창작을 위한 전용공연장이나 젊은 전통예술인 발굴을 위한 전용공연장,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전용공연장이 있음.
- 국내 공연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예술의 일부와 결합해 성공한 공연의 성공사례들이 있음. 사물놀이의 리듬을 결합시킨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나 전통무예인 택견과 태권도를 접목한 ‘점프’ 등이 그것들로서, 이들은 이미 그 흥행성을 검증 받고 국내외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음.
 - 이 작품들이 국내외 공연예술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전통음악 또는 전통 무예인 택견과 태권도 등을 기본으로 작품을 현대화하여 새로운 무대공연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며
 - 둘째는 제작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막대한 예산 투자, 끈질기고 집요한 홍보작업 등을 들 수 있으며,

- 셋째는 안정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장기전용극장의 존재를 들 수 있음.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공연이 가능한 전용공연장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은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발전, 프로그램 개발 및 관객과의 교감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전통예술의 안정적인 공연은 공연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공연경험을 통해 관객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며, 세분화된 마케팅으로 인하여 관객층 개발에 힘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임.

2.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의 역사와 형태

-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이 실내 공연장에서 공연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공간에서 공연되었음. 전통예술은 고유의 전통 건축물에서 공연되거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임.
- 개화기 이후 실내공연장들이 생겨나면서 전통예술 역시 실내공연장에서 공연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협률사’ 및 ‘원각사’ 등임.
- 또한 1930년대 생긴 ‘동양극장’의 경우, 장르전용공연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양극장의 개관은 극단들이 대거 생겨나고 장기 공연체제가 정착되었으며, 그로 인한 연극의 기업화와 수많은 연극인 탄생 등의 연극계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함. 이는 장르전용 공연장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문 공연장의 설립도 앞당기게 된 계기가 되었음
- 1950년 국립중앙극장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명동국립극장 시대를 거쳐 1973년 장충동에 현재 모습을 하고 있는 공연장을 설립하게 되었음. 이후 서울 및 많은 지역에서 공연장들이 경쟁하듯 개관하고 있음.
- 1988년 이후 매년 7개 전후의 문화예술회관들이 개관하고 있고, 기업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공연장들도 앞 다투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운영활성화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많은 공연장들이 음악공연, 연극, 뮤지컬, 무용 등을 한 곳에서 하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립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함.
- 다목적이라 하면 전통예술, 연극,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모두 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제 건립과정에서는 어느 장르에도 적합하지 않은 공연장이 되어 버렸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게 된 전용공연장은 공연장의 용도가 특정한 장르나 작품 또는 관객이나 사용단체에 한정된 공간을 의미함. 연희전용공연장, 전통무용 전용공연장 및 연극전용공연장, 뮤지컬 전용공연장, 콘서트홀, 인형극장 등 특정한 장르에 한정된 전용공연장이 있는가하면, 난타극장, 캣츠극장 등과 같이 특정 작품을 위한 전용공연장도 있음.
- 전용공연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장르별 전용공연장임. 공연형태에 유사성을 보이는 작품들에 공통되는 무대조건을 중심으로 건립해 나가는 것이 장르별 전용공연장의 특징임.
- 이와 같은 전용공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장르 특성에 따라 무대와 객석의 관계라든가 무대의 구조 및 크기, 무대장치의 경중에 따른 무대전환 시스템, 음향조건의 차이에 따른 건축음향 등 장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연장을 요구하기 때문임. 사실 이처럼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하나의 공연장을 통해 모두 만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공연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공연장이란 ‘전용공연장’ 이 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이 전용공연장의 설립은 공연 시연의 완성도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공연관람객 세분화와 프로그래밍의 방향도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의 전문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장르별 전용공연장들의 경우, 각 장르에서 요구되어지는 공연장의 형태가 있음.
 - 뮤지컬의 경우, 막간 세트 회전을 위한 이동무대나, 클래식 공연의 경우, 음향조정을 위한 음향반사판 등이 그 예임. 전통예술의 경우, 어떠한 공연장의 형태가 필요할 수 있음.
 - 판소리 연행 실내극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구의 프로시니엄 무대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판소리 연행 실내극장에 대한 반성과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음. ‘과연 오늘날 판소리가 공연되고 있는 극장들이 문화적 이미지로서의 판소리 공연을 담아내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임.
 -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는 대답을 할 것임. 이것은 우리의 판소리 공연에 있어서 공연자와 관객의 관계를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 프로시니엄 극장에 대해 전통예술 공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극장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용극장의 필요성을 줄곧 주창해 온 사실에서 잘 드러남.

- 국립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등의 전통예술 전용공연장들 역시 기본적으로 프로시니엄 형식의 극장형태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통예술의 공연자와 관객의 유기적 관계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게끔 함.
- 한편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도 없지 않음. 이들은 오늘날의 프로시니엄 극장과 우리전통예술이 갖고 있는 관객과 연희자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그 해결방법을 전통연희양식에 근거하여 도출해내지 못하고 프로시니엄 무대의 한계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얻어진 서구식 돌출무대(Thrust Stage)와 원형무대(Arena Stage)에서 찾으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극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서구연극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전통예술의 고유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서구의 프로시니엄 무대는 마치 액자와 같은 프로시니엄 아치로 관객과 공연자를 완전히 분리함. 이러한 무대는 관객이 볼 수 없는 숨겨진 공간 속에 미리 무대장치를 준비하여 관객들에게 다양한 무대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반면에 관객과 공연자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예술을 위한 공연 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함.
- 우리 전통연희는 이 지구상의 대부분 연극이 갖는 관객과 연기자의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관객과 연희자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함. 이것은 우리 전통공연예술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공연 내내 관객과 공연자가 한 공간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감흥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관계를 맺음.
- 이러한 예는 판소리의 추임새에서 잘 드러난다. 판소리 창자의 소리에 감흥을 받은 청중이 “얼씨구”, “좋다” 등과 같은 추임새로 창자에게 호응하면 다시 창자는 관객의 감흥어린 응대에 힘을 얻어 일층 정성을 다하게 됨. 우리의 전통연희공연에서 관객은 추임새를 하고, 연희자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함께 어깨춤을 추기도 하면서 직접적인 응대로 적극적인 참여를 함.
- 이러한 전통예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전용공연장의 형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통예술 역시 다양한 형태의 공연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시니엄, 돌출무대, 원형무대 등 다양한 공간의 구조역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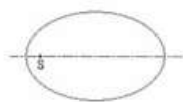
- 우리의 삶의 양식의 총체인 전통예술이 극장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닌, 관객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지는 공연이 되기 위한 전용공연장 형태가 필요한 것은 실내공연장 문화가 비교적 짧고 고유의 공연장 문화가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공연장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¹⁾

3. 전통 국악공연장의 공간구성 사례

- 국악은 가, 무, 악 노래, 춤, 음악이 서로 어우러져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공연 양식임. 한국의 전통음악은 감흥을 유도하고 관객과 어우러짐과 극과 연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공연장은 정악과 민속악 등의 두 가지 특성을 살려 계획되어야함.
- 전통 국악공연장에서 무대는 가장 필수적인 공간이며,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위한 주 활동공간임. 그리고 무대에서는 공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각종 기계장치가 수반됨. 다음은 전통공연장 계획시 고려해야할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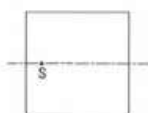
공연장의 평면 유형

< 원형 또는 타원형 공연장 >



음이 집중하거나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며, 에코(echo)가 형성되어 음향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원호형의 확산판에 의한 개선이 필요하다.

< 정사각형 공연장 >



음원에 가까워 음의 지향성에 영향이 많고, 공간이 커지면 무대 측면의 객석부분은 명료도가 떨어진다. 음원의 중심 축에서 양측으로 70° 이내에 객석을 위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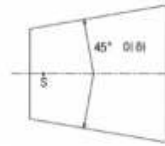
<보완된 직사각형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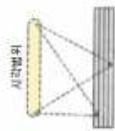
직사각형 공연장의 보완된 형태로 45°의 무대 경사벽면은 음확산에 도움이 되며, 후면은 흡음 처리한다. 음향적 측면에서 음향설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1) 김은주(2011), “전통예술 전용공연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 문석사학위논문에서 요약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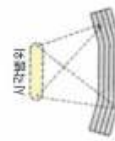
< 부채꼴형 공연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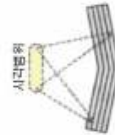
다중 반사음 없이 음의 확산을 조절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공연장 평면 형태이다. 부채꼴의 각도가 너무 클 경우 음의 확산이 있기 때문에 45° 이 내가 가장 좋다.



a. 직선형 배열 - 유효 시각 범위는 폭에 의한 무대의 크기가 넓어질 수 있지만 측면쪽의 관객 시선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단점이 있다. 공연장의 폭이 좁은 경우 유효하다.



b. 2중 직선형 배열 - 직선형의 측면 양쪽을 무대 중앙부로 꺾은 모양이다. 적절한 무대의 크기 확보와 관객의 시선을 보완한 형태이다. 공연장의 폭이 큰 경우에 유효하다. 이 경우 매우 완만한 원호형과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c. 절선형 배열 - 2개의 직선을 중앙을 향해 배치한 경우로 일반적인 객석 배치는 아니며, 원호형 배치보다는 공연장의 폭을 좀 넓게 확보할 수 있지만 원호형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d. 원호형 배열 - 무대의 중앙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객석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관객의 시각 집중도가 크지만, 무대의 폭이 한정되는 단점이 있다. 강단이나 회의장에 많이 쓰이는 배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완만한 원호형 배열이 많이 사용된다.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결의자의 경우의 최소 반경은 6,000 이상으로 계획한다.

자료 : 장현진(2007), “전통음악 공연장 계획안 -인사동의 장소성 분석을 바탕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국립국악단 우면당 사례

1) 설립목적 및 연혁

-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의 원형 재현과 보급 활성화 및 국악연구 등 민족음악의 전승·보존·발전을 위해 국립국악원을 설립,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대표기관이며 국악의 총 본산으로 삼고 있음.
- 국립국악원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있어온 국가음악을 관장하던 음악기관임. 신라시대에는 그 이름을 음성서(音聲署)라 하였고, 고려조에는 대악서(大樂署), 전악서(典樂署) 등이라 하였으며, 조선조에는 아악서(雅樂署), 전악서(典樂署), 장악원(掌樂院) 등의 이름으로 왕조와 그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 업무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국가음악을 관장한 1,400여년의 전통을 가진 국립음악기관임.
- 국립국악원의 공연시설 중 우면당은 1988년 서초동 청사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공연장으로서, 무대와 객석의 차이를 좁혀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367석 규모의 극장임. 국악과 관련한 음악과 무용, 전통연희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주요업무

-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세계화, 국악의 생활화, 국악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국악의 세계화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및 무용의 해외소개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고, 해외동포 및 교포 밀집지역의 문화원, 교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포 및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문

화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파견, 악기 및 교구재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해외동포들에게 국악의 보급 및 교육기회를 확대 하였음.

- 800여회의 해외공연과 해외국악문화학교, 주한 외국인 국악문화학교와 아시아전통예술인 초청 국악연수, 해외음악학자 초청 국악워크숍, 해외국악자료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함.
- 국악의 생활화는 고유의 풍습과 예법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우리 춤과 소리 그리고 ,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감할 주는 우리 전통 예술을 위해, 국악의 진흥활동에 역점을 둬م.
 - 창작국악동요제와 국악동요 작곡 워크숍, 찾아가는 국악원과 온 나라 국악 및 전통춤 경연대회, 국악의 생활음악화가 그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국악의 체계화는 우리 국악의 미래를 새로 열어가는 연구 활동으로서, 국악자료의 조사 및 발굴, 이론의 체계화 작업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한국음악학의 정립을 지향하면서 국악의 보존, 전승, 개발하는 것임.
 - 매년 기초자료 조사연구를 통한 자료발간과 국악학술연구, 국악기 제작의 과학화 연구와 국악교육연구 및 자료개발, 국악자료실과 국악박물관 운영이 있음.

3) 공연현황

(1) 시대공감 열린무대

- 시대공감 열린무대는 2010년의 경우 신예들의 무대를 볼 수 있는 ‘꿈꾸는 예인’ 과 명인들의 무대로 이루어진 ‘명인 창무전’ 이 격월로 진행된다. 전통무용, 성악, 기악 등 다양한 무대를 월별로 구성하여 각 분야 명인들의 무대를 볼 수 있게 함. 우면당의 무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규모의 공연이 아닌, 작은 규모로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연의 형태가 주를 이룸.

(2) 토요 명품공연

- 토요 명품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4시, 우면당에서 열리는데,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그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무대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상설공연으로서, 한국 고유의 멋을 간직한 수준 높은 공연들로 구성됨. 30여년을 이어온 전통예술 상설무대로서, 국악의 초심자들과 외국인, 애호가를 위해 국악의 전 장르를 고루 선정함. 초보자를 위한 가무악 종합프로그램인 ‘알기쉬운 우리국악’은 매월 1, 3째주에 진행되었고, 애호가를 위한 명인명품 프로그램 ‘길게듣기, 깊게듣기’는 매월 2째주에 진행되었으며, 세계무형유산프로그램인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유산’은 매월 4째주에 진행되었음.

(3)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

- 국악콘서트 ‘다담’은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라는 부제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11시에 우면당에서 열린다. 유명가수나 방송인이 진행을 하게 되며, 다양한 주제 아래 관련 명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국악을 감상하며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함.

2. 서울 남산국악당 사례

1) 설립목적 및 연혁

- 2007년 11월 개관한 서울남산국악당은 전통한옥에서 자연음으로 살아나는 국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국악전용공연장임. 330석 규모의 국악공연장은 음향과 조명, 무대설비 등 공연에 적합한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국악의 자연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연장이 되어 여타 공연장과 차별화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음.
 - 지상1층 지하2층의 한옥으로 건축된 남산국악당은 공연장과 국악체험실, 교육강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연장은 기존 서구식 액자형에 원형극장 같은 아레나 성격을 가미해 정악과 민속악 등의 공연을 가능하게 한 국악의 특성을 반영함. 서울시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은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함

2) 주요업무

- 서울남산국악당은 국악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 체험의 전당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요일별 레퍼토리 극장’, ‘생기 있는 축제극장’, ‘하루 종일 열린 극장’ 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함.
 -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한 요일별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다양한 컨셉의 공연을 구비하는 ‘요일별 레퍼토리 극장’과 봄, 가을, 송년 시즌 창작공연 및 전통예술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테마로 축제를 운영하는 ‘생기 있는 축제극장’, 공연장이 비어있는 낮 시간을 중심으로 개설되는 강좌와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루 종일 열린 극장’ 운영을 주요업무로 함.

3) 공연현황

(1) 우리전통 상설무대

- 우리전통 상설무대는 각 요일별 특성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됨. 겨울, 봄, 가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상설무대들은 많은 공연자들에게 출연기회를 제공함. 요일별로 무용, 기악, 성악 등 다양한 공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퓨전창작공연을 중심으로 대중성 있는 작품들 위주로 선정하여 운영함. 신예 연주자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달도 있고, 명인들의 무대를 장르별로 감상할 수 있는 달도 있다. 심의위원들의 선정을 거친 다양한 작품들이 요일별로 무대에 오름.
 - 서울남산국악당의 2010년 겨울 수요상설무대는 ‘백학(白鶴)의 춤을 추며’라는 주제로, 다리와 목이 가늘고 긴 새인 백학이 우리 전통무용을 담아 옷깃이 날리는 생동감과 화려한 춤사위를 표현한다는 의미로, 여러 유파별 춤사위를 학습한 작품을 선보였음.
 - 또한 겨울 금요상설무대는 ‘설중사우(雪中四友)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네 가지 꽃이란 의미로, 전통예술 명인들의 성악과 기악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겨울 토요일상설무대는 ‘남산에서 놀다’로 전통퓨전무대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되었음.
 - 이처럼 계절별로 각 요일의 공연의 특성을 정리해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공연별로 각기 다른 주제와 내용을 통해 전통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 기획공연

-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음악극 ‘시리동동 거미동동’은 공연관람과 함께 남산골한옥마을 체험 등 체험과 공연이 결합한 형태의 공연이며, 한여름 밤의 막걸리콘서트 ‘별빛 달빛 콘서트’는 막걸리 시음과 공연이 결합한 형태이며, 월드뮤직이나 젊은 전통예술 공연자들의 무대가 함께했음.
- 이 밖에도 어버이날 공연이나 전통예술로 만들어낸 음악극 등의 기획공연을 통하여 전통예술의 무대화와 재창조화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무대예술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음.

3.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KOUS) 사례

1) 설립목적 및 연혁

- 한국문화의집 코우스(KOUS)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설립한 공간으로 2003년 3월에 개관하였음. 최초의 설립취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전통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화국가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이었고, 우리 것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체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교육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생활화함에 있으며, 한식당과 전통예술 공연장으로 건립되었음.
 - 한국 전통공연의 원형과 현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통예술 공연장과 전승공예 작가들이 직접 지도하는 전통공예 교육시설인 문화유산교육원, 한국문화를 보다 가볍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과 전통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찻집, 전통공예품과 기념상품을 구입,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문화상품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문화의집 코우스(KOUS)의 문화유산교육원은 문화상품 개발능력을 지닌 신진 공예인을 육성하고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초반, 연

구반, 전문반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

- 개설교육과정은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문화재보수 기술학교, 전통예능 전수학교, 문화유산학교가 있음. 또한 전통문화체험의 경우 전통공연, 한지공예, 탈춤, 풍물 등을 통한 우리문화의 정수를 느끼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단체 및 학교,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대상임.
-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KOUS)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은 243석의 객석규모로 사각형 돌출무대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서 설계 되었으며, 공연장 실내는 단청 무늬로 전통의미를 나타내었음.

2) 주요업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통문화 전승, 보급,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세계의 무형유산 발전을 위해 국제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전문특수법인으로서, 코우스(KOUS)는 현대 속에서 우리의 멋스러운 옛 문화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문화공간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임.
- 설립취지에 맞게 코우스(KOUS)는 한국의 뿌리 깊은 정신세계를 담은 전통예술의 여러 분야를 골고루 보여주는 상설공연과 외국인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전통문화교육 체험 공간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함.

3) 공연현황

(1) 수요기획 공연

- 시대공감 열린무대는 2010년의 경우 신예들의 무대를 볼 수 있는 ‘꿈꾸는 예인’과 명인들의 무대로 이루어진 ‘명인 창무전’이 격월로 진행된다. 전통무용, 성악, 기악 등 다양한 무대를 월별로 구성하여 각 분야 명인들의 무대를 볼 수 있게 함. 우면당의 무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규모의 공연이 아닌, 작은 규모로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연의 형태가 주를 이룸.

(2) 기획공연

- 수요기획공연 이외에도 명품 명무전 ‘팔무전(八舞傳)’이나 탈춤을 주제로 제작했던 ‘탈춤의 눈’ 등의 기획공연들이 있으며, 특정한 기간에 다양한 주제로 공연됨.

4. 상설무대 우리소리 사례

1) 설립목적 및 연혁

- 상설무대 우리소리는 거문고와 해금의 명인인 김영재 선생의 사재로 마련된 공간으로, 50여 평의 규모로 10여명이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무대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추고 있음.
 - 1993년 개관한 이래 천여회 이상의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주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악공연 관람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마련, 명인 초청 강습회 등을 통해 두터운 관객 층 확보와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됨.

2) 공연현황

(1) 자유무대

- 보다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의 무료개방제도인 ‘자유무대’는 극장 측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하여 상설무대 우리소리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누구든지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한 뒤 자유롭게 무대를 활용할 수 있음.
- 극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어 공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예술인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대관료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됨. 객석규모가 많지 않은 소극장이 더욱 유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청은 진행하지 않음.

(2)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독주회

-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중 1인 또는 2~3인의 연주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틀’, 대학생들에게 독주회 기회를 제공하는 ‘꿈틀’,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생에게 독주회 기회를 제공하는 ‘날틀’은 개인적으로 공연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공연공간을 제공하고, 대관을 무료로 해주며, 공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무대의 특성을 극대화 시킨 공연들이다 기획이나 홍보 인력을 구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학생들에게 기획 및 홍보와 공연진행 지원 등은 연주실력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함²⁾.

2) 김은주(2011), “전통예술 전용공연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석사학위논문에서 요약정리.

03

부여포룡정 현황과 공연장 조성계획 및 해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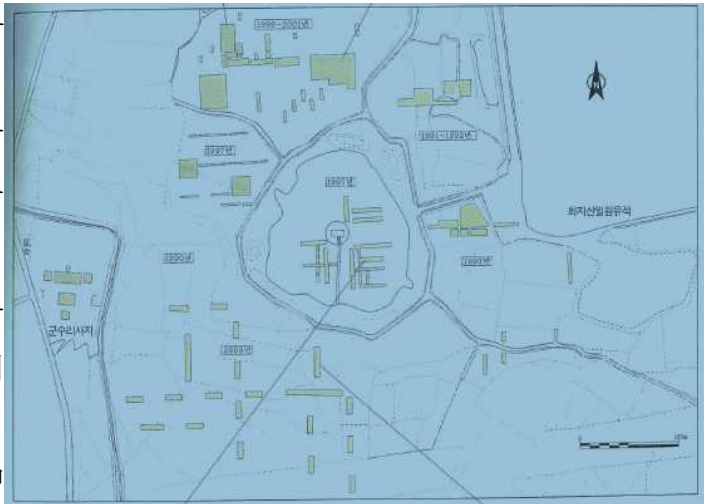
1. 궁남지와 포룡정 현황

1) 궁남지

- 부여읍 남쪽에 위치한 백제시대 별궁 연못이다.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근거로 궁남지라 부름.
- 이 연못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무왕조(武王條)에 "3월에 궁성(宮城) 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20여리나 되는 긴 수로로 끌어들였으며, 물가 주변의 사방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에는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본뵈었다"라고 되어 있음. 사실, 백제에서 왕궁 근처에 연못을 만드는 전통은 이미 한성시대(漢城時代)부터 시작되었음. 다만, 한성시대에 조성된 왕궁에 딸린 연못은 아직 발굴된 바 없어서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그에 비해 웅진(熊津)시대의 왕궁이었던 공산성(公山城) 안에서는 당시의 것으로 판단되는 연못이 왕궁지(王宮址)로 추정되는 건물지(建物址)와 함께 발굴되었음. 공산성에서 발굴된 이 연못은 바닥이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원형의 연못인데 직경 7.3m, 바닥 직경 4.8m, 그리고 깊이 3m의 크기를 보이고 있음. 이로



써 보면 백제에서 왕궁 근처에 연못을 만드는 전통은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한성시대와 웅진시대의 연못은 그 자체만 확인될 뿐 여기에서와 같은 삼신산(三神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음.



- 삼신산은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삼신산(三神山)에는 신선(神仙)과 불로초(不老草)가 있고, 황금(黃金)과 백은(白銀)으로 된 궁궐도 있는 일종의 이상향임. 따라서 기록대로 이 궁남지의 한가운데에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모방한 조산(造山)이 있었다면 이는 중국의 진-한대(秦-漢代)부터 신선사상에 근거하여 삼신산을 조성하였던 것이 백제의 왕궁 조원(造苑)에 처음 들어온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궁남지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 무왕 37년 조에는 "8월에 망해루(望海樓)에서 군신(群臣)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고, 다시 39년조(年條)에는 "3월에 왕이 왕궁(王宮)의 처첩(妻妾)과 함께 대지



자료 : <http://blog.daum.net/leekyuongjoo/11740899>

에서 배를 띄우고 놀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음. 이로써 볼 때 이 궁남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 백제시대에는 단지 대지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음. 아울러 뱃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그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현

재는 1만평 정도만 남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3만평 정도가 연못으로 되어 있었다고 함. 그러나 정확한 크기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만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

- 이 궁남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의자왕(義慈王) 15년조에 보이는 《"2월에 태자궁(太子宮)을 지극히 화려하게 수리하고 왕궁 남쪽에 망해정(望海亭)을 세웠다"》라는 기록임. 망해루(望海樓)나 망해정(望海亭)에서 대지(宮南池)를 바라보면 바다와 같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을 터이고, 이렇게 바다와 같이 큰 연못을 왕궁 근처에 만드는 것이 백제가 처음이었음을 알 수 있음. 즉, 신라의 경우 문무왕대(文武王代)에 안압지(雁鴨池)를 만들고, 그 안에 삼신도(三神島)를 조성하며, 주변에 임해전(臨海殿)을 세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백제의 궁남지와 같은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런 점에서 백제의 조원(造苑) 기술은 삼국 중 으뜸이었으며, 통일신라의 조원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포룡정[抱龍亭]

- 부여읍 남쪽 1km 남쪽 동남리에 위치한 궁남지는 사적 135호로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정 오래된 인공연못으로 알려져 있음. 삼국사기에는 백제말기 무왕 때인 634년에 ‘궁의 남쪽에 못을 파고, 못 언덕에 수양버들을 심고, 못 가운데 섬을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다고 함.

- 연못 가운데 신선이 산다는 방장산의 의미를 담은 작은 섬과 정자가 있고, 물위에 구름다리가 걸려있음. 무왕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금성산에서 뻗어 내려오는 영기를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야 한가운데 못을 팠다고 전함.



- 연못 한가운데 정자의 이름이 포룡정임. 이곳에는 서동의 어머니와 관련된 전설이 내려옴. 궁궐 남쪽에 사는 한 여인이 어스름한 달밤 잠을 못 이루고 연못을 나갔다가 그때 갑자기 못에서 물결이 일더니 용이 나타나

여인을 노려보았는데 태기를 느낀 여인은 열 달 뒤 서동을 낳았다는 이야기임.

- 포룡이라는 이름은 용과 정을 통했다는 기이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임.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이 전설을 하나의 은유로 보고 있음. 용은 곧 임금이고 서동은 임금과 미천한 신분의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서자라는 주장임.

● 포룡정기[抱龍亭記]

궁남지(宮南池) 사적 제135호라는 이름은 <삼국사기> 무왕조에 궁성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20여리 긴 수로로 끌어 들였으며, 주변 사방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는 섬을 만들었다 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포룡정(抱龍亭) 정자이름도 백제 제30대 왕인 무왕의 어머니가 홀로되어 부여 남지 주변에 살던 중 교룡이생소명서동(交龍而生小名薯童) 즉 용과 관계하여 서동을 낳았다는 삼국유사 기록에 바탕 한 것이다.

이처럼 백제무왕 35년 (634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 궁남지는 서동과 신라선화공주의 애절한 사랑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궁남지 한 가운데에는 신선과 불로초 황금으로 된 궁궐이 있는 이상향인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본 뜬 산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1965년 12월 복원이 시작되어 총 9천6백5평의 연못을 보수하였으며, 1971년 12월에 정자를 중건하고 나무다리를 놓아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5년 5월 고증을 바탕으로 보수 단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서동은 왕의 밀명을 받고 서라벌 정탐을 위해 신라에 잠입 했다가 미모의 선화공주에 반하여 서동이 적국의 공주를 손에 넣기 위해 백제의 무왕은 아이들에게 마을 나눠주며 ‘선화공주가 밤마다 마동이(무왕)와 잠을 잔다’ 는 노래를 퍼뜨려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함.

-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던 이 노래가 바로 향가 ‘서동요’ 임. 주민들은 이곳을 마래방죽이라 불렀는데 옛날 궁남지 주변에 마밭이 많았기 때문이라 함. ‘마래’ 가 무왕이 아이들에게 나눠준 마와 관계가 있다는 것임.

- 이곳 궁남지가 바로 서동요의 주인공인 무왕 설화의 배경이 된 곳임. 서동을 밤마다 안고 안자는 노래 때문에 공주는 궁에서 쫓겨나고 서동과 선화공주는 백제에서 정착하여 살았음.

- 궁남지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생겨났다고도 하고, 이러한 백제의 조원(조원(造園)) 기술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원문화를 탄생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궁남지에서는 연꽃이 만발하는 7월이면 서동-연꽃축제가 열리고 있음.

2. 포룡정 공연장 조성계획(안)

1) 필요성 및 목적

- 부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궁남지에 예술을 접목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 마련 필요
 - 궁남지 서동-선화연꽃축제를 통한 부여군 관광홍보마케팅과 연계하고, 역사문화와 자연생태가 조화되는 전통공연장의 조성 및 정기공연의 개최로 관광객의 매력성을 제고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
- 방한 중국인 및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형의 야간 전통공연의 기반 구축과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촉진
 - 대산향을 통한 대중국 관광객의 유람선 취향과 더불어 중화권의 요우커를 집중 유치하고, 일본인과 유럽과 미국, 중동, 동남아 등의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전통문화예술의 정기공연을 통한 외국인 체류 관광기반을 구축.

2) 사업개요 및 구상

- 위 치 : 궁남지 포룡정
- 사업기간 : 2017.
- 사 업 비 : 20억원
- 사업내용 : 음악분수, 관람석, 수목등 및 부유조명, 포룡정 라운드 무대, 서동선화 러브 판타지 공연
- 궁남지 서동연꽃축제 Killer Contents 개발, 정기 공연
 - 수용인원 : 2,100석(주무대 600석, 라운드 1,500석)
 - 공연계획 : 매년 4월 ~ 10월(8개월 공연)
 - 공연준비 : 부여군 충남국악단 공연 창작
- 궁남지 SKY CONCERT HALL 기반조성, 공연 수익 창출
- 궁남지 연지 무료 관광과 궁남지 콘서트홀 유료 공연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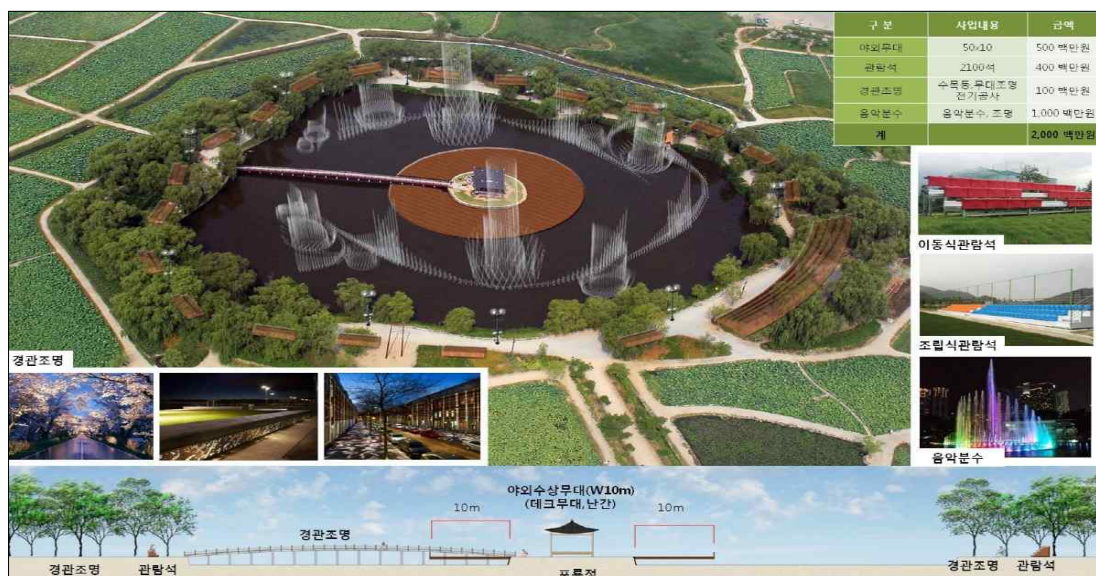
3) 세부사업계획

- 포룡정 라운드 무대 : 기존 포룡정에 도교를 설치한후 분수를 양쪽 10m씩 설치
 - Floating Aluminium식 부잔교 구조 : 육각모들 40EA
 - 기능적인 공연장이 아닌 향유하는 수상공연장으로 궁남지의 포룡정과 버드나무를 배경으로 물위에 떠있는 느낌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즐거움과 수변이 주는 편안함을 제공함
- 주무대 객석(조립식 관람석) : 600석 규모, 라운드 객석(포터블 관람석) : 1,500석 규모
 - 포터블 관람석 : 3단에서 5단까지 가능(길이 4.5m, 폭 1.68m)
- 경관조명 : 전반조명 - 가로등, 블라드

연출조명 - 수목등, 부유조명, 연꽃조명

- 주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야간에 빛으로 특화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생동감 넘치는 관광명소로 부각

궁남지 SKY CONCERT HALL 기본구상도



- 음악분수 : 각 노즐에 7 컬러 LED조명을 탑재하여 야간에도 화려한 수경연출
 - 제원 : 메인분수 80미터 * 5미터 1SET, 보조분수 10미터 * 5미터 2SET

- 분수연출높이 : 15미터 인버터 기획 연출
- 센터 워터스크린 직사분수 높이 15미터 * 길이 50미터, 레이저 영상 연출
- 설비부분 : 분수 프레임 설치 2개소, 수중펌프 및 피팅류 10개, 노즐 200개
웨이브 노즐 20개, LED조명등 300개

4) 추진계획

- 2017. 03 ~ 2017. 04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2017. 05 ~ 2017. 06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사업 추진

3. 해결과제

1) ‘문화재 보존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 등 대책 필요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 지역에 문화재 주변500미터내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제35조 허가사항

-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 [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 하는 행위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 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포룸정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무대와 경관조명, 음악분수 등의 인공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 법의 제한범위에 적합한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함

2) 포룸정 공연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수익 및 경제적 타당성

- 포룸정 공연장의 조성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억 원의 사업비에 수용인원을 2,100명으로 하여 궁남지 연지의 무료관광과 궁남지 콘서트홀의 유료공연으로 운영하여 공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 중임
- 사업개요
 - 위 치 : 궁남지 포룸정
 - 사업기간 : 2017년부터
 - 사업비 : 20억원
 - 사업내용 : 음악분수, 관람석, 수목등 및 부유조명, 포룸정 라운드 무대, 서동선화 러브 판타지 공연
 - 궁남지 서동연꽃축제 Killer Contents 개발, 정기 공연
 - 수용인원 : 2,100석(주무대 600석, 라운드 1,500석)
 - 공연계획 : 매년 4월 ~ 10월(8개월 공연)
 - 공연준비 : 부여군 충남국악단 공연 창작
 - 궁남지 SKY CONCERT HALL 기반조성, 공연 수익 창출
 - 궁남지 연지 무료 관광과 궁남지 콘서트홀 유료 공연의 조화

☞ 이상과 같이 20억원의 사업비와 2,100석의 공연장 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의 조성비용과 충남국악단의 공연창작비용, 공연장의 공연횟수와 방문객 수 등을 고려한 수익 및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3) 역사유적 및 연꽃경관과의 기술과 운영의 타당성

- 궁남지는 백제시대의 별궁의 인공연못으로써 전통정자인 포룡정을 중심으로 하여 연못이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수양버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연못의 한쪽 주변 지점에서 다리로 건너가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주변에는 연꽃을 대규모의 연꽃을 식재한 연지와 수로가 있고, 연못의 주변에는 산책로와 입구에는 주차장과 광장이 조성되어 있음.



자료 : <http://blog.daum.net/mtbxc/674>

☞ 이상과 같이 포룡정을 중심으로 한 역사유적과 주변의 수양버드 나무 및 다리, 주변의 대규모 연꽃지 경관은 2,100석의 공연석을 고려하고, 이동 및 시설배치 등을 고려할 때 무대설치와 운영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현재의 공연장 조성계획에는 하절기 우천시 및 야간 밤이슬에 대한 대책과 연못과 습지에 의한 하절기 모기 및 해충, 뱀 등 야생동물로 부터의 방어대책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04

포릉정 전통공연장 조성 및 운영방안

1. 궁남지 경관 및 문화재 보존의 조화방안

1) 국악공연공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맞는 무대조성

- 한국에서 춤과 노래의 공연 장소들은 사랑방, 마을의 정자, 신당마당, 주택마당, 사찰대웅전 앞마당들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되었음. 이에 따라서 연희공간은 마을광장, 신당앞마당, 주택마당, 궁궐전정, 사찰중정 등이 있었음.
- 특히, 국악의 연희 공간은 가까운 자연에서 멀리 있는 자연으로서 확장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의 춤과 노래의 공연 장소들은 항상 마을광장, 신당마당, 주택마당, 사찰대웅전 앞마당들로써 모두 옥외이며, 그 외부공간은 또한 공간을 한정하는 공간으로 자연이었음.
- 국내의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은 국립국악원(1988년 우면당, 1996년 예약당)과 국립민속국악원(1997년), 국립남도국악원(2004년), 국립부산국악원(2008년) 등이 있는데 모두 실내공연장임.
- 또한 실내가 아닌 역사유적지 내에서 운영되는 공연은 서울 종로의 종묘 정전에서 개최되는 종묘제례악 연주이나 이 공연은 정기적인 공연이 아니라 제례시기에 맞추어 매년 공연되고 있음.
- 또한, 해외 즉, 중국에서 자연 및 역사유적과 연



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대규모 공연장과 공연을 실시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인상(印象/impression)시리즈” 인데 최초 작품이 2003년 중국 계림의 리강(양수오)에 막을 연 “인상 유삼저” 이고, 두 번째는 운남성 리장 옥룡설산의 인상여강, 세 번째는 항주에 있는 서호에 인상서호, 네 번째는 해남도 바닷가의 인상해남도, 다섯 번째는 무의 무이산의 인상대홍보, 여섯 번째는 중경 무릉의 인상무릉 등이 있음.

: 인상시리즈의 특징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는 무대**, 4-500명의 공연인원, 독특한 볼거리, 현지 주민 일자리 창출 등임.

- 포룡정의 공연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한데, 포룡정은 전통건축물로 만들어진 정자로서 포룡정 정자내부와 외부의 잔디밭 등에 충남국악단의 국악 공연을 위한 무대를 라운드무대형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전통건축물과 연못 및 연지 등이 조화될 수 있는 무대와 관련 조명과 음향의 설치를 추진해야함.

- ☞ **공남지 포룡정의 전통공연장은 공연무대인 포룡정 정자와 주변공간의 라운드무대, 음악분수로 조성되는 연못, 객석으로 만들어지는 연못주변의 주무대 객석(600석) 및 라운드 객석(1,500석) 등의 기본구상(안)의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함.**
- ☞ **특히, 공연장과 자연 및 문화재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문화재 시설의 현상변경과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무대구성을 위한 공연인원과 객석수 등도 고려하면서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는 무대로 조성되어야함.**

2) 국악의 유형별 관객과 공연자와의 관계 고려한 공연장 조성

- 대부분의 국악 유형은 관객과 공연자의 관계가 서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음. 국악공연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우리 민족의 생활감정에 표현이자 생활의 일부였으므로 공연자와 관객 즉, 무대와 객석의 관계는 상호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밀착된 형식으로 구성되어야함.
- 국악의 유형별로 공연특성의 구분은 제례악·범패·작법 등 의식악, 연례악·군례악·정재·가사가 곡 등의 정악, 농악 등 각종 민속놀이, 인형극, 탈춤 등의 마당놀이, 민요·잡가, 판소리, 시나위 등이 있음.
- 다양한 관객과 공연자의 관계성은 어느 공간의 형식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작

융합. 국악은 공연자와 관객사이의 교류가 빈번 한가 빈번치 않은가에 따라 다양한 무대와 객석의 형식이 요구됨. 이상과 같이 국악의 공연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음.

	공연 분위기	규모	현장성
제례악	제사를 올리기 위한 음악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대규모	중요
궁중무용	우아하면서 연회적 분위기	대규모	중요
승전무	순박하면서 고태	대규모	중요
가곡	음악 자체를 감상하는 전문가의 음악	소규모	보통
시조	즉흥적, 대중적 분위기	소규모	보통
가사	정가적인 특성과 민속악적인 특성 지님	소규모	보통
판소리	창자의 흥에 맞추어 고수와 청중이 어울리는 분위기	소규모	중요
민요	토속적 흥겹고, 구성지고 애절한 감정	소규모	중요
잡가	관중들과 직접 울고 웃음	소규모	중요
무악	관객의 참여가 적극적임	중규모	중요
산조	전체적으로 죄었다 풀었다 하는 긴장과 이완의 대비	소규모	보통
시나위	즉흥적 가락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관객이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유발	중규모	보통
농악	흥에 겹고 익살스러움	대규모	중요
범패	엄숙, 경건, 심오함	소규모	중요
작법	무거운 가운데 조용함	소규모	중요
승무	이지적 분위기	소규모	중요
살풀이	평민생활의 생활감정을 표현	소규모	중요
검무	장쾌한 분위기	중규모	중요
탈출	연기자와 관객의 합일이 요구	대규모	중요

자료 : 조기삼(2009), '자연과 연계된 전통국악 공연장 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의 음향설치와 성능을 고려하여 포룸정 무대에서 연못과 주변의 제 방에 이동식으로 설치되는 라운드객석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연의 음향전달의 효과가 매우 미흡할 수 있으므로 야외공간임을 고려한 음향기기의 설치와 성능에 대한 배치와 기기의 도입을 추진해야함

- 아래표의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등과 같이 국악의 특성에 맞도록 무대형태를 장방형과 부채꼴형, 향아리형 등으로 구성하고, 단면형식도 발코니와 경사형식 등을 취함. 이는 객석의 음향과도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포룸정도 야외공연장 이지만 이를 반영해야함.

구분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예악당	우면당			
소속		국립	국립	국립	국립	
개관년도		1997	1987	1992	2004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전북 남원시 어현동	전남 진도군 임회면	
건립목적		민족음악의 보존, 전승, 및 보급, 발전 국악의 전 장르를 비롯하여 창극 및 기타 외국의 전통악공연	소규모 연주형식 및 실험적 공연물공연	민족국악의 보존, 전승 및 보급 발전	남도지역의 무속음악 및 향토요 등 무형문화재자원을 이용한 국악체험연수기능	
객석	수용인원		790석	375석	680석	600석
	면적(㎡)		778.45	361.04	912	644
	평면형		장방형	부채꼴형	장방형	향아리형
	단면형식		2층발코니형식	단일경사형식	단일경사형식	2층발코니형식
	실용적(㎡)		9,340	2,730	측정치 없음	6,215
	잔향시간 (500Hz)		1.0초	1.0초	측정치 없음	0.9~1.0초
	의자간격 (전후*폭)		960×540mm	950×535mm	1000×510mm	900×520mm
	통로 폭	세로	1,000mm	1,065×1,000mm	990mm	1,200mm
		가로	1,002mm	없음	1,150mm	1,500mm
출입구 (폭*개소)		1층:1,800mm×4개소 2층:1,800mm×4개 소	1층:1,600mm×4개소 2층:1,600mm×2개 소	1층:900mm×2개소 3,600mm×1개소 2층:900mm×6개소	1층:1,800mm×4개소 2층:1,800mm×2개 소 900mm×1개소	

자료 : 조기삼(2009), '자연과 연계된 전통국악 공연장 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포룸정을 공연장으로 조성할 경우 충남국악단을 중심으로 공연을 있는 공연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국악의 유형에 적합하면서도 무대의 규모뿐만 아니라 공연자와 관객과의 관계를 고려한 공연장 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 ☞ 특히, 이 공연장은 출연자의 규모와 공연의 방향성, 청각적 전달요소 등 연행적 특성과 무대의 형태, 무대와 객석의 규모, 부속 공간 등이 조성되어야함

3) 국악의 유형별 객석규모와 공연양식 적용 추진

- 전통과 현대의 공연은 공연양식에 맞추어 수용인원에 따라 객석의 규모를 선정하게 됨. 포룡정 공연장 역시 고전음악 중심의 국악을 대표로 하는 공연장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외의 장소성을 고려하여 500~1,800석의 객석규모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연양식에 따른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음

공연양식	수용인원	공연양식	수용인원
인형극	500~800	오케스트라	1,000~2,500
고전음악	500~1,800	오페라	1,000~2,000
현대극	500~1,000	발레	1,000~2,000
실내악	500~1,000	뮤지컬	1,000~2,000

자료 : 조기삼(2009), '자연과 연계된 전통국악 공연장 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또한, 국악공연의 수용인원을 위한 전국 공연장의 객석 수는 다음과 같으며 200~800여석의 규모를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서 포룡정 공연장도 800석 규모의 객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함.

공연장		소속	위치	개관 년도	연면적 (㎡)	객석 수 (석)	무대 면적 (㎡)	무대형식	기타
국립 국악원	예악당	국립	서울시 서초구	1997	12,378	790	1,005	프로세니엄	교육, 연구, 전수 사무, 공연기능
	우면당			1987	3,879	375	217	프로세니엄	
전북도립국악원		도립	전주시	1986	2,171	324	132	프로세니엄	연구, 전수중심 정기공연 없음
난계국악당		군립	충북영동	1987	1,994	528	94평	프로세니엄	군민회관으로 운영
고령대가야 국악당		군립	경북고령	1988	2,109	460	83.6 평	프로세니엄	군민회관으로 운영
세종국악당		군립	경기여주	1990	1,900	497	160	프로세니엄	군민회관으로 운영
동리국악당		군립	전북고창	1991	678평	500	80평	프로세니엄	군민회관으로 운영
국립민속국악원		국립	전북남원	1992	8,531	680	512.8	프로세니엄	교육, 연구, 전수 사무, 공연기능
우륵당		시립	충북충주시	1997	1,196	200 명	30평	프로세니엄	연구, 전수, 교육 공연기능
한구소리 문화의전당 (명인홀)		시립	전주시	2001	1,145 평	206	110평	프로세니엄	민간위탁운영으로 국악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국립남도 국악원		국립	전남진도	2004	8,264	600	585	프로세니엄	교육, 연구, 전수 사무, 공연기능

자료 : 조기삼(2009), '자연과 연계된 전통국악 공연장 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분		Proscenium형식	Open Stage 형식	Arena Stage 형식
관객수용능력		관객석이 많아질 경우 무대와의 거리가 멀어짐	프로세니엄형식과 애리나형식의 중간	관객과 연기자가 근접된 거리에서 많은 관객을 수용
관객과 연기자의 관계	방향성	1방향	3방향	多방향
	일체감	불량	비교적 양호	아주양호
시각적인 측면		관객석이 많아질 경우 객석 뒷열은 아주 불리	비교적 양호	”
음향적인 측면 (직접음 전달)		연기자가 이동시 아주불리 무대와 거리가 멀어지면 아주불리	비교적 양호	불량
무대설비	기능분화	양호	비교적 양호	불량
	조명효과	다양한 효과연출	비교적 다양한 효과	제한
	연기자의 색채 의장효과	불량	비교적 양호	양호
	무대배경 설치	제한받지 않음	비교적 제한됨	아주 제한됨 (낮은 가구들로 구성)
무대면적의 가변성		후무대 활용시 양호	후무대 외에 옆무대, 앞무대 사용시 아주 양호	아주불량
연기자의 출퇴장		제한됨	제한됨	제한되지 않음
적절한 국악의 유형		문才 (의물이 있는 경우) : 헌선도, 오양선, 수보록, 근천정, 수명명, 하왕은, 성택, 옥화대, 봉래의 唱劇, 인형극	연례악, 제례악, 군례악, 판소리, 민요, 잡가, 가곡, 가사, 시조, 시나위, 산조, 사물놀이, 범패, 살풀이 문才 (의물이 없는 경우)	농악, 탈춤, 처용무, 승무, 태평무, 한량무

자료 : 조기삼(2009), '자연과 연계된 전통국악 공연장 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또한, 국악공연장에서 무대 평면 형식별로 비교해 보면, 포룸정은 Open Stage형식으로 채택하여 관객 수용능력이나 관객과 연기자의 관계, 시각과 음향전달, 무대설비, 무대면적의 가변성 등을 고려해야함.

- 그리고, 기존 연구의 사례를 통한 국악공연별 무대 및 객석의 적정규모는 다음과 살펴 보았음.
 - 먼저 대편성의 정재 공연과 대편성의 연례 악 공연인 경우에는 주 무대의 면적이 약 400 m², 객석의 최전열거리부터 최 후열거리는 가시거리의 2차 허용한도 거리인 38m에 근접한 35m 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객석의 면적은 920m²가 요구되며, 객석 수는 1150석이 적합하 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중편성의 연례 악 공연인 경우는 무대면적이 105m², 객석의 가시거리는 1차 허용거리 인 22m보다 초과한 28m이내의 거리가 요구되며, 그리고 객석면적은 840m², 객석의 수는 1050석이 적당한 규모라 하겠다. 반면에 좌우측 면적이 140m², 객석의 가시거리는 대체로 가시거리의 1차 허용한도인 22m에 근접한 20m 가 적당하며, 객석면적은 800m²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객석의 수는 1000석이 적당함을 볼 수 있음.
 - 그리고 시조, 가사, 판소리 등의 민속악 공연을 위한 적정한 규모는 다소 작은 규모인 무대 면적 60m², 객석의 가시거리는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생리 거리인 15m이내가 필요하며, 객 석면적은 336m², 객석의 수는 420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끝으로 살풀이, 승무 등의 민속무 공연과 학무, 춘향전 등의 정재 공연인 경우는 무대면적 45m², 객석가시거리는 12m, 객석의 면적은 80m²가 필요하며, 객석의 수는 100석 정도의 규 모가 적합하다고 하겠음.
- 이상과 같이 국악공연장 조성 계획의 이론을 검토하여 조성하는 국악공연장의 국 악공연별 무대 및 객석의 적정규모를 다음과 살펴 보았음.
 - 국악의 공연별 형식에 적합한 무대형식은 제례악, 예악 등의 정악과 의물이 등장하는 정재 공연에는 공연의 1방향성의 분위기, 다양한 무대의 전환, 무대의 배경 및 조명효과, 관객의 가시거리 확보 등으로 인하여 프로세니움 형식이 적합하다 하겠음.
 - 또한 농악, 탈춤 등의 민속악 및 대중 악 공연에는 상기한 프로세니움 형식과는 상대적으로 오픈스테이지 유형의 돌출 형식이나 아레나 형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 원인으로는 공 연자와 관객간의 일체감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접촉이 요구된다는 점, 공연의 방향성이 다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공연자의 움직임이 다양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객석에서의 가시거리를 분석한 결과 대중 악(민속무)와 정악(가곡, 가사)의 공연에는 15m이 내, 대중 악에서 판소리, 시나위와 불교 악(작법) 공연인 경우는 20m, 행악(대취타)과 연례 악(제례악) 공연에는 35m 이내의 가시거리가 요구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가시거리의 범 위는 공연내용(시각적/청각적 내용 강조 여부) 및 방법 공연인원 및 의물장식 여부, 무대와

객석의 일체감 형성과 바닥구배 형식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음.

- 시조, 판소리, 가사 등의 공연유형은 무대 폭/깊이가 7-8m내외/4m내외의 장방형, 민속무, 곡파 등의 공연은 무대의 폭/깊이가 모두 6-9m내외의 소규모 정방형 형태가 요구됨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오양선, 근천 정 등의 공연에는 무대의 폭/깊이가 모두 11-12m내외의 중규모 전방형, 종묘제례악, 대 풍류의 경우는 15m/5-9m내외의 중규모 장방형이 적합하며, 야외마당놀이, 처용무 등의 공연에는 20m내외/12-20m내외의 대규모 장방형이나 정방형/원형의 무대 형태가 요구됨을 볼 수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장르별 국악공연에 적합한 무대/객석의 적정규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대편성의 정재 및 연례 악 공연의 경우는 무대/객석의 규모가 각400m²/920m², 가시거리 35m 가 필요하며, 중편성의 연례 악 공연에는 105m²/840m², 가시거리 28m내외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중편성의 정재공연의 경우는 140m²/800m², 가시거리 20m, 시조, 가사 등의 민속악 공연의 경우는 60m²/336m², 가시거리 15m, 살풀이, 승무 등의 민속무와 학무, 춘향전 등의 정재 공연에는 45m²/80m², 가시거리 12m의 규모가 적합함을 보이고 있음.

☞ 국악공연장에서 공연의 유형별로도 객석규모와 공연양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고전음악의 경우는 수용인원이 500명 - 1,800명 규모이나 전국의 공연장 객석수는 200석-800석 임을 고려하여 객석규모를 설정해야함.

☞ 특히, 공연무대와 객석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객석의 면적 등과 무대배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포룡정 공연장은 충남국악단의 공연을 전제로 할 때 중편성의 연례악 공연에 105m²/840m², 가시거리 28m내외의 규모와 중편성의 정재공연 경우는 140m²/800m²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관광객 유치 및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1) 한국의 국악 공연시장

① 장르별 공연현황

- 2015년 장르별 공연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연예술 분야 장르 가운데서 창작초연과 재공연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은 공연이 개최된 장르는 양악(10,190건)으로 전체 공연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극(5,721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그리고, 국악(1,547건), 무용(1,330건), 혼합(1,108건) 장르 공연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창작초연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는 연극이 177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무용 119건(22.9%), 양악 109건(21.0%), 국악 67건(12.9%), 혼합 48건(9.2%)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재공연 작품이 가장 많은 장르는 양악 10,081건(52.0%)으로 전체 재공연 작품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극 5,544건(28.6%), 국악 1,480건(7.6%), 무용 1,211건(6.3%), 혼합 1,060건(5.5%) 순으로 나타났다. 창작초연의 경우 연극과 무용 장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재공연은 양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장르별 공연건수 및 비율(초연/재연)은 다음과 같음.

구분	장르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계
창작초연	공연 건수	67	109	177	119	48	520
	비율	12.9%	21.0%	34.0%	22.9%	9.2%	100.0%
재공연	공연 건수	1,480	10,081	5,544	1,211	1,060	19,376
	비율	7.6%	52.0%	28.6%	6.3%	5.5%	100.0%
계	공연 건수	1,547	10,190	5,721	1,330	1,108	19,896
	비율	7.8%	51.2%	28.8%	6.7%	5.6%	100.0%

주 : 국악의 세부장르는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등을 포함함.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문예연감.

② 세부 장르별 공연현황

- 공연예술의 세부장르 소분류 기준에 따르면 국악, 양악, 연극, 무용의 4개 장르는 공연 유형 및 방식에 의하여 각각 세부 장르로 2차 분류할 수 있음. 국악은 기악, 성악, 합창, 연희, 그리고 국악 세부장르 간의 결합인 복합과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르로 분류했으며 양악은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 기타로 구분하였음.
- 연극은 연극, 뮤지컬, 복합, 기타로 무용은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복합, 기타로 나누었다. 각 장르의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를 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는 기악이 1,019건으로 전체 국악 공연 건수(2,380건)의 42.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복합 551건(23.2%), 성악 449건(18.9%), 연희 312건(13.1%), 합창 48건(2.0%)이 뒤이어 나타나고 있음.
 - 공연 횟수는 기악이 2,154회(39.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복합1,465회(26.9%), 연희 995회(18.3%), 성악 590회(10.8%), 합창 244회(4.5%)순으로 나타났음.
- 국악의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빈도	1,019	449	48	312	551	1	2,380
	비율	42.8%	18.9%	2.0%	13.1%	23.2%	0.0%	100.0%
공연 횟수	빈도	2,154	590	244	995	1,465	1	5,449
	비율	39.5%	10.8%	4.5%	18.3%	26.9%	0.0%	100.0%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문예연감.

- ☞ 국내 공연예술의 국내 공연현황을 살펴보면, 국악공연은 공연건구나 비율에서 양악, 연극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악의 세부장르에 다시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음
- ☞ 이중, 충남국악단은 기악공연에 속하고 있는데, 기악에도 현대와 전통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들 중 기악은 공연건수나 공연횟수에서 다른 장르보다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통기악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어 타 장르에 비해서는 기악에 대한 공연시장이 비교적 양호함을 할 수 있음.

2) 부여군 관광객 수와 관람객 시장환경 분석³⁾

① 총 관광객 수

- 부여군의 관광객 수는 2014년 총 5,596,260명이 방문하였으며, 내국인은 5,584,377명(99.8%)이 방문하였고 외국인은 11,883명(0.2%)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내국인의 방문객은 2010년 총 7383,217명에서 2014년 5,584,377명으로 연평균 6.7%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 11,883명으로 2010년 124,283명에서 44.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부여군의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4년 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2010년에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대규모 축제 및 이벤트 개최가 없어 관광객 방문이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부여군 관광객 추이(2010-201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총계	7,507,500	5,447,973	5,271,433	5,851,945	5,596,260	-7.1%
내국인 (비중)	7,383,217 (98.3)	5,417,956 (99.4)	5,252,299 (99.6)	5,837,334 (99.8)	5,584,377 (99.8)	-6.7%
외국인 (비중)	124,283 (1.7)	30,017 (0.6)	19,134 (0.4)	14,611 (0.2)	11,883 (0.2)	-44.4%

자료: 부여군 내부자료(2015년)

3) 부여군(2016), 「부여군 신관광마케팅 전략수립 연구」

②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

- 부여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구드래 국민관광지가 2,681,621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47.9%를 차지하며, 궁남지의 관광객이 1,152,153명으로 20.6% 순임 내국인 방문객이 주로 방문하는 곳은 구드래국민관광지, 궁남지 등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립부여박물관이 3,86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32.5%가 방문하여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관광지로 나타남
- 부여의 관광객은 무료관광지 관광객이 4,503,107명으로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관광지 관광객은 1,081,27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외국인관광객은 총 11,883명 중 유료 7,410명, 무료 4,473명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7,329명으로 중국인 644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관광지 관광객 수(2014년 기준)

구분	합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유료	무료	소계		일본		중국		기타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유료	무료
합계	5,596,260	5,584,377	1,081,270	4,503,107	7,410	4,473	4,640	2,689	355	289	2,415	1,495
부소산성	476,603	474,120	321,540	152,580	2,335	148	1,425	27	76	-	834	121
능산리고분군	50,510	50,297	38,617	11,680	198	15	172	14	9	-	17	1
무량사	51,215	51,106	37,693	13,413	40	69	13	36	17	20	10	13
정림사지	156,457	154,522	117,175	37,347	1,908	27	1,713	26	45	-	150	1
국립부여박물관	257,855	253,995	-	253,995	-	3,860	-	2,396	-	229	-	1,235
만수산자연휴양림	27,756	27,726	19,274	8,452	30	-	-	-	-	-	30	-
백제문화단지	513,800	510,635	366,422	144,213	2,820	345	1,260	181	202	40	1,358	124
백제역사문화관	168,953	168,919	166,883	2,036	34	-	21	-	4	-	9	-
서동요촬영지	22,890	22,836	13,666	9,170	45	9	36	9	2	-	7	-
성흥산성	36,447	36,447	-	36,447	-	-	-	-	-	-	-	-
궁남지	1,152,153	1,152,153	-	1,152,153	-	-	-	-	-	-	-	-
구드래국민관광지	2,681,621	2,681,621	-	2,681,621	-	-	-	-	-	-	-	-

자료: 부여군 내부자료(2015년)

③ 부여 주요 관광지 검색 빈도

- 부여의 주요 관광지 중 검색빈도가 가장 높았던 궁남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의 5년간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궁남지에 대한 검색빈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또한 궁남지에 대한 검색은 7월 서동연꽃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여 주요관광지 검색빈도수

구분		2014	2015년											전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부소산성	PC	830	1042	773	1802	3171	3387	1757	2389	2526	3036	4259	2161	27,133
	모바일	1266	2231	1873	2586	3961	6507	2384	4921	6363	4478	6914	3258	46,742
	전체	2,096	3,273	2,646	4,388	7,132	9,894	4,141	7,310	8,889	7,514	11,173	5,419	73,875
낙화암	PC	807	1071	734	1193	1744	2287	1383	1552	1697	1833	2264	1490	18,055
	모바일	1910	3405	2938	3377	4410	7347	3343	5955	9101	5827	7283	4106	59,002
	전체	2,717	4,476	3,672	4,570	6,154	9,634	4,726	7,507	10,798	7,660	9,547	5,596	77,057
능산리 고분군	PC	165	486	190	416	487	739	392	752	904	716	1016	553	6,816
	모바일	249	695	285	369	487	546	329	969	1398	863	1222	600	8,012
	전체	414	1,181	475	785	974	1,285	721	1,721	2,302	1,579	2,238	1,153	14,828
백제 왕릉원	PC	59	93	65	127	217	296	224	162	138	168	248	135	1,932
	모바일	55	123	116	99	182	360	119	159	252	198	308	108	2,079
	전체	114	216	181	226	399	656	343	321	390	366	556	243	4,011
정림사지	PC	375	545	272	699	870	1189	762	1199	1300	1395	1689	1069	11,364
	모바일	398	697	441	648	964	1416	618	1461	2171	1828	2406	1178	14,226
	전체	773	1,242	713	1,347	1,834	2,605	1,380	2,660	3,471	3,223	4,095	2,247	25,590
궁남지	PC	850	1,066	846	1,595	2,237	2,757	2,562	6,346	3,543	2,423	2,907	1,789	28,921
	모바일	1,656	3,686	2,415	3,480	4,372	7,763	5,221	22,592	13,065	6,340	7,611	3,601	81,802
	전체	2,506	4,752	3,261	5,075	7,132	10,520	7,783	28,938	16,608	8,763	10,518	5,390	111,246
백제 문화단지	PC	1264	1727	1365	2228	3609	3633	1687	3126	3176	2943	4396	3504	32,658
	모바일	2332	4371	3479	3733	5216	11078	2771	8088	14045	6435	10354	6521	78,423
	전체	3,596	6,098	4,844	5,961	8,825	14,711	4,458	11,214	17,221	9,378	14,750	10,025	111,081
성흥산성	PC	114	66	81	103	152	149	117	104	113	160	210	155	1,524
	모바일	167	143	156	134	183	198	153	180	219	361	378	268	2,540
	전체	281	209	237	237	335	347	270	284	332	521	588	423	4,064
구드래	PC	30	514	41	45	98	86	62	64	90	104	104	60	1,298
	모바일	62	95	105	147	175	280	136	213	403	250	290	163	2,319
	전체	92	609	146	192	273	366	198	277	493	354	394	223	3,617
서동요 세트장	PC	25	38	36	42	50	41	38	61	48	50	49	68	546
	모바일	36	66	80	68	64	127	85	148	167	91	132	123	1,187
	전체	61	104	116	110	114	168	123	209	215	141	181	191	1,733
무량사	PC	439	677	454	433	664	851	615	839	859	714	896	624	8,065
	모바일	1267	3148	1733	1872	2041	3819	1756	2809	3811	2276	2816	2154	29,502
	전체	1,706	3,825	2,187	2,305	2,705	4,670	2,371	3,648	4,670	2,990	3,712	2,778	37,567
만수산 휴양림	PC	77	59	55	84	77	134	171	225	124	82	54	41	1,183
	모바일	125	109	58	91	88	152	185	309	301	1078	80	63	2,639
	전체	202	168	113	175	165	286	356	534	425	1,160	134	104	3,822

자료 : 네이버검색광고 키워드도구(<http://searchad.naver.com>)

- ☞ 부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수와 주요 관광지 검색빈도를 통하여 공남지 및 포룡정에 대한 관광객의 방문잠재력과 가치를 살펴볼 때 2014년 부여군 560만여명의 관광객중에 공남지에 115만명이 방문을 하여 20.5%로 관광객 유치의 타당성이 높음
- ☞ 뿐만 아니라 부여군에 대한 관광객 검색빈도에서는 111,246회로서 백제문화단지 111,081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서 잠재 관광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관광유인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포룡정을 공연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광객수의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3) 타지역 공연장 사례에 의한 사업성 확보

- 남양주시 공연장 타당성 연구에 의한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구리 아트홀과 초기의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의 사례를 보면, 우수한 기획공연이 공연장 운영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공연기획자 및 시설운영 인력들을 확보해야 하며, 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연장의 규모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확보되어야 하며, 우수한 작품들이 공연될 수 있도록 시청과 공연장 운영책임자의 비전이 확립되어 있어야 함
- 공연장의 경영방식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공연장의 규모로 보았을 때 위탁보다는 직영이나 재단의 설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재단은 규모의 경제가 확보될 때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남양주의 공연장은 객석수 5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연장이며 준공시 채용될 인력의 규모가 15명 정도로 예상되는 바, 직영체제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며 향후 더 큰 규모의 공연장이 설립되었을 때는 두 공연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의 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임
- 공연장의 공연수입의 수익성을 위하여 공연장 객석의 규모는 8-900석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며, 500석 규모에서의 수입은 공연료를 충당하기 힘든 구조로서 최소 600석 정도는 되어야 간신히 공연단체에 공연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임재범, 조수미 등 1급 가수의 경우 1회 개런티가 1억 2천을 상회하고 있으

며, 구리시 뮤지컬의 경우도 1회 5천만원 정도의 개런티를 지급하고 있음)

- 공연장 시설은 우수한 공연을 위하여 최상의 품격을 견지하여야 하며 관람객들에 대한 이미지 포지셔닝을 위하여 랜드마크성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각종의 부대시설로서 소공연장, 연습실, 강의실, 갤러리, 카페, 로비 등 다양한 시설이 겸비되어야 함
- 상주단체를 활성화하여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공연단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하며, 반대급부로서 년 수회의 공연을 의무화하여 수준있는 공연을 통하여 시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관객 및 아카데미 참여자들을 위하여 어린이 돌봄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 불편이나 거부 의사가 없도록 배려할 필요 있음. 그리고, 수익성을 위하여 아카데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갤러리는 지역예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수익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타지역 공연장 사례에서 공연장의 수익성을 위한 객석의 규모는 800-900석 이상이 되어야 함. 그리고, 공연장 시설은 우수한 공연을 위하여 품격이 있으면서 관람객들에 대한 이미지 포지셔닝을 위해 랜드마크성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궁남지의 포룡정은 공연장의 품격과 랜드마크성에 있어서는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춘.

☞ 더불어 수익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충남국악단의 공연이외에도 지역에 상주하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공연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 특히, 관람객들의 공연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아카데미를 활성화하여 높은 수준의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3. 무대의 기술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1) 국악 전용극장에 대한 무대설치 기준 검토 기존 연구⁴⁾

① 무대형태

- 기존 연구에서 국악 전용극장의 무대 형태는 ‘트러스트(돌출) 무대 형식’ 이 알맞다는

4) 정재월(2013), ‘한국 전통예술 공연장 전문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의견이 많음. 김창언은 민속음악 즉 〈시조〉와 〈가사〉·〈가곡〉·〈산조〉·〈시나위〉, 그리고 〈판소리〉를 포함하여 ‘장방형의 돌출무대’를 국악 전용극장의 무대 형태로 제시했음. 이준배는 ‘프로시니엄 형식과 아레나 형식의 중간’으로 표현 했는데, 비록 표현은 이렇지만 결국 돌출무대라는 뜻임. 김정태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음.

- 출연진의 규모와 방향성, 시·청각적인 표현요소, 그리고 옛 연주 공간의 전통 등을 감안하면 장방형의 돌출무대가 무난함. 하지만 이보다는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아치와 무대 전환용 측무대를 생략한 ‘엔드 스테이지’가 국악 전용극장의 무대로는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② 무대 규모

- 기존 연구에서 무대 규모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중극장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음. 김창언은 민속음악의 무대 규모를 60㎡(가로 10m×세로6m)로, 김정태 등은 역시 같은 민속음악을 기준으로 414㎡(가로 28.8m×세로 14.4m)를 제시했음. 또한 이준배는 300~500㎡를 예측했음.

③ 객석 규모

- 무대의 규모가 다르면 객석의 규모도 달라짐. 김창언이 같은 조건에서 예측한 민속음악 전용극장의 객석 수는 4백20석(336㎡, 무대/객석의 비 0.19)임. 김정태 등은 역시 위와 같은 조건에서 5백80석을 추산했음. 이준배는 3백~5백석을 제시했음.
- 이 결과를 종합하면 민속음악 전용극장의 객석규모는 중극장(3백~1천석)의 범위에 위치함. 그러나 객석 수는 음향의 확장기술 등을 구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

④ 부속 공간

- 성악이나 기악의 경우, 악기와 간소한 소도구(병풍, 돛자리 등) 외에 별다른 무대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임. 물론 제례음악 등에서는 대규모 의물(儀物)을 요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실내 공연일 경우는 극장 자체가 돌출무대보다는 그런 것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프로시니엄 무대가 적합함.
- 그 외 민속음악과 궁중음악은 이미 엔드 스테이지와 돌출무대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는데, 별도의 무대 장치의 설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하여 만약의 요구에 대비해 무대에 여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위치는 엔드 스테이지의 무대 뒤와 그 좌·우 공간이 적합함.

2) 국악 전용극장에 배치안

① 무대 형태

- 국악 전용극장은 일반적인 돌출무대도 가능하지만, 프로시니엄 아치와 무대 전환을 위한 측무대 등의 작업공간이 생략된 「엔드스테이지(end stage)」 형태를 보다 적합한 안으로 제안하고 있음. 단 무대의 측벽과 후벽, 천정 등은 음향 에너지가 객석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사재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함.
- 또한 무대 바닥의 마루재는 음향적으로 반사율이 높은 경질(硬質)의 단풍나무 등이 적절하며, 저음(低音)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밀착해서 마루재를 붙이는 것 보다는 마루 아래에 적절한 빈공간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② 무대 규모

- 연주자 한 사람이 필요한 면적은 약 $1.1\sim 2.0\text{m}^2$ 정도이지만, 악기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는 달라짐. 가야금과 거문고 등과 같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악기들과 출연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절대 소요 공간은 약 20m^2 이지만 연주대형 등을 고려할 때에는 60m^2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포룸정과 정자와 주변의 라운드 무대에 대한 규모도 함께 검토되어야함.

③ 객석 규모

- 객석의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계소는 ‘ $0.645/1\text{인}$ ’으로, 전체 객석이 5백석이라고 가정할 때 객석 면적은 약 350m^2 가 됨. 무대의 폭 10m에다 노래를 할 경우 명료하게 청취할 수 있는 소리의 방사각이 70° 임을 감안하면, 객석 폭은 약 15m, 길이는 약 23m가 됨.
- 이 경우 객석 제일 뒷벽까지 소리의 감쇠(減衰)는 약 27dB이 되므로 나발·뽕과리·태

평소·징 등 야외 악기가 아닌 경우 전기 음향설비의 도움 없이는 객석 전체에 충분한 음압으로 소리를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음색이 어둡고 발현하는 음압이 비교적 낮은 실내용 국악기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2백석 정도까지 객석 규모를 현저히 낮춰야 함. 만약 전기 음향설비의 도움을 받는다면 객석 규모에서는 비교적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콘서트홀과 같이 건축음향이 우수하다면 적정 객석규모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임.

④ 부속 공간

- 무대의 부속공간으로는 무대에 인접한 출연자 대기실과 분장실 정도면 무난할 것으로 보임. 객석 후면에 조명과 음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정실이 필요함.

국악공연장 조성을 위한 특성과 배치규모 기준

구분		국악	비고
▶연행적 특성	① 출연자 규모	•연주(노래):1~10명 •반주:1~7명	•제례악은 수십명
	② 공연 방향성	•1~3방향(일부 다방향)	•야외 공연은 다방향
	③ 청각적 전달요소	•연주 및 노래 •반주음악	
	④ 시각적 전달요소	•제례의 절차 •연주자의 움직임	
	⑤ 장소적 특성	•소규모 실내 공간	•야외 제례악 제외
▶전용 공연장 배치안	① 무대 형태	「엔드 스테이지」 (※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아치를 제거한 형태)	•돌출형 무대(가로 장방형)도 가능
	② 무대 규모	•60㎡(가로10m×세로 6m)	•악기의 편성에 따라 다소 유동적
	③ 객석 규모	•2백석 내외	•소극장 규모 (※전기음향 시설의 도움을 최소화 할 경우)
	④ 부속 공간	•대기실·분장실 •음향·조명 조정실	

자료 : 정재월(2013), '한국 전통예술 공연장 전문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과 같이 국악 공연장은 국악의 유형에 따라 공연분위기뿐만 아니라 관람인원 및 규모, 현장성이 매우 중요함. 특히, 국악을 전용으로 하는 공연장의 배치는 연행적 특성에 맞추어 공연장의 무대형태와 무대 및 객석규모, 부속공간 등을 구성해야함에 따라 포룸정의 공연장

도 현재의 2,100석 규모의 객석과 배치, 무대구성, 조명과 음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설계를 추진해야함

- ☞ 포룡정의 경우 연행적 특징에서 야외공연으로써 다방향성을 고려하고, 전용공연장이 아닌 야외공연장인 점을 고려하여 무대형태와 규모, 객석규모, 부속 공간 등을 설치해야함.
- ☞ 현재, 포룡정의 공연장은 2,100석 규모의 객석과 연못과 연못주변에 나열식 배치를 구상하고 있으므로 무대의 구성에서부터 객석의 배치, 조명과 음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설계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함

1. 경제적 타당성

1) 경제적 측면에서 공연장의 중요성

-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는 악보의 음질과 회화의 색채와 같은 전문용어로 표현되거나 혹은 작품, 오브제의 경험, 그리고 또 다른 문화적 우수성과 유용성이라는 문화적 현상의 특성 내에 존재함.
- 공연장은 관객증가, 관광객의 방문, 수입규모의 확대, 지역경제발전 촉진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공연장은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재정적 지원은 문화예술 상품의 생산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공연장이나 문화시설, 축제와 같은 관광, 문화자원은 일부 개인에게 귀속된 사적 재화가 아니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이러한 공공재로서의 총 경제가치(total economic value)규정에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됨.
- 여기에서 사용가치는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보전하며 직·간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편익을 의미하고, 비 사용가치는 미래에 사용을 하거나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가치임.
- 공연장은 창조적 예술활동과 사회와 교육적 복합문화활동의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가 있음. 미국의 링컨센터는 공연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도효과, 관객효과로 구분함.

- 공연장이 창출한 일자리나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직원고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직접적 효과라고 함.
- 공연장이 물품과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고용과 수익으로 인한 효과를 간접적 효과라고 함.
- 공연장의 근로자나 물품공급자가 자신의 임금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유도효과라고 함.
- 공연장의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하여 방문한 관객들의 지역 내 소비활동에 따른 경제 활동을 관객효과라고 함.

2) 타 공연장의 경제성 분석 사례 : 남양주 공연장

- 타지역에서 도시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남양주 공연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의 산정기준과 운영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았음.
- 경제성 분석 산정기준
 - 운영수지 분석은 복합공연장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 측면을 고려하여 작성
 - 수입은 전시장 임대료와 공연 관람을 통한 공연수입으로 구성
 - 전시장 임대료는 전시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당 3,000원의 임대료를 부과
 - 또한, 전시장 임대는 월 5일, 12개월 운영, 가동률은 100%로 가정
 - 공연 관람을 통한 공연수입은 설문을 통한 지불의사 금액 20,000원을 고려하였으며 매월 6회, 12개월을 가정
 - 비용은 토지비, 공사비, 부대경비, 운영비, 인건비, 설계 및 감리비로 구성
 - 토지비는 토지매입을 위한 100억과 매입제비용으로 구성되며 매입제비용은 6%로 가정
 -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공연장 공사비, 세미나실 공사비, 연습실 공사비, 사무실 공사비, 악기보관실 공사비, 전시실 공사비, 대기실 공사비로 구성되었으며 문화관광부 문화시설 단가를 적용
 - 예비비는 직접공사비의 10%를 적용
 - 부대경비는 등기비를 의미하며 직접공사비의 3.15% 적용
 - 운영비는 관리운영비와 감가상각비로 구성되며, 각각 매출액의 20% 및 정액법 30년을 적용

- 인건비는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5명, 250만원/월을 고려
- 설계비와 감리비는 각각 10억으로 적용
- 운영경비 중 공연행사비는 자체공연(3건)에 드는 비용으로 유사 사례지역 공연장 예산액을 근거로 건당 5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10년 단위 운영경제성 분석(최장 30년)

- 2014년 복합공연장 착공을 시작으로 한 30년 기준으로 2043년 흑자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공연을 연간 10회로 가정할 경우의 경제성은 77%로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착공기준 30년의 경제효율성은 37%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2017년 복합공연장의 운영을 기점으로 한 30년 경제성은 1.0미만 인 것으로 나타나, 초기 투자비에 의한 자금 회수가 복합공연장의 난점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연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공연 횟수 증가와 관람료 증가, 전시장 개방성 확보가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전시장임대(5일-6.5일) 및 관람객증대(133% 증가 가정)의 경우에는 기존 B/C를 80% 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복합공연장의 경우에는 문화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한 향후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로 문화적인 가상적 기여도를 고려해볼 때, 단순 B/C만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은 제한적임
 - 또한, 기존 타 유사시설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 약 20%-30%인 것을 감안해볼 때 주간 및 주일 이용이 활성화될 것을 가정한 남양주시의 복합공연장의 경제성은 상당한 수준의 것으로 판단됨
- 남양주시 복합공연장은 높은 경제성 외에 산업 전방효과는 398억원이 유발되며 산업 후방효과는 482억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복합공연장 자체적인 지역개발효과 외에 지역산업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⁵⁾.

5) 남양주시(2014), '남양주시 북부권역-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남양주시 공연장 경제성 분석 사례

구분			기준	금액
편의	전시장	임대료	평당, 3천원, 5일, 12개월	4,771,636,364
	공연수입	관람료	월6회, 12개월, WTP 20,000원 적용	7,776,000,000
	매출총액			12,547,636,364
비용	토지비	토지대금	100억 기산정	10,000,000,000
		매입제비용	6%	600,000,000
	토지비 소개			10,600,000,000
	공사비	토목공사비	평당 1,500,000	5,454,545,455
		공연장	평당 12,000,000	17,454,545,455
		세미나실	평당 750,000	90,909,091
		연습실	평당 3,000,000	2,000,000,000
		사무실	평당 1,500,000	254,545,455
		악기보관실	평당 2,000,000	242,424,242
		전시실	평당 2,000,000	1,963,636,364
		대기실	평당 1,000,000	121,212,121
		예비비	직접공사비의 10%	2,758,181,818
	직접공사비소계			27,581,818,182
	부대경비	등기비	직접공사비의 3.15%	868,827,273
	운영비	관리운영비	매출액*20%	2,509,527,273
		감가상각비	정액법 30년 적용	16,755,954,545
	공연행사비	기획비	1년에 10건, 5천만원/1건	
		홍보비	1년에 10건, 2천만원/1건	
	인건비		15명, 월 250만원	14,580,000,000
	설계비		1식	1,000,000,000
	감리비		1식	1,000,000,000
	비용소계			57,271,345,455

자료 : 남양주시(2014), '남양주시 북부권역-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

- ☞ 포릉정에 공연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경우 관광객의 방문에 의한 관객의 증가와 수입의 확대로 지역경제발전 촉진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유도효과, 관객효과를 부여군에 가져다줄 수 있음.
- ☞ 또한, 타 공연장의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운영경제성을 검토한 결과에서와 같이 B/C 분석만에 의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에 대한 투자비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분석하고 있어 포릉정 역시 공연장의 경제성분석은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한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함.

2. 사회·문화적 타당성

1) 공공재적 가치

- 오늘날 공연장의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공연장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문화 예술을 즐기는 장소가 아닌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현대사회를 이끄는 인간 활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견해를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폭 넓은 지원정책을 수립하며 과거에는 없던 교육기능과 같이 더욱 많은 복합기능을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음.
- 공연장의 공공재적(public goods) 성격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비배제성과(nonexcludability), 비경합적 재화(non-rival goods)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불특정 다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오늘날 공연장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말하는 공공재로서 완전한 공공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미국의 브로드웨이(Broadway)나 영국의 웨스트엔드(West End), 한국의 대학로로 대표되는 공연장 밀집지구들의 경우를 보면 분명 사적 재화(private goods)로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내포하고 있음.
- 물론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와 상업성 위주의 공연은 논외로 친다 할지라도 분명 공공재로서 모습을 상실하고 있고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논란도 없음.
- 공공재는 수요와 공급이 자유경쟁원리에 따른 시장의 가격에 따라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시장가격도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다는 고전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공연장은 지역적, 정책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향유자의 경제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공연장의 공급은 사회적 판단, 정책적 고려, 예산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재임.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책기구를 통하여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임.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중요성에 상응하는 자세를 부담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도시의 문화와 환경적 가치

- 근래 들어 공연장의 가치 중 도심의 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공연장은 도시 공동체 형성의 장(場)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와 매력을 증진시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도시의 핵심가치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자치단체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음. 아직 문화도시의 모델이 정립된 것은 아니나 문화 인프라 구축의 핵심쟁점은 공연장 설립에 있음.
- 문화복지는 문화적인 삶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념으로 논의되고 있음. 1996년 문화체육부가 문화복지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문화복지’ 문화정책의 핵심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논의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가 커졌다는 점임. 문화적 삶이란 단순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차원도 포함하는 개념임.
- 또 다른 하나는 문화복지를 하나의 권리, 즉 문화권(cultural rights)으로 인정하여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임.
- 일반적으로 도시 문화환경 체계는 크게 문화 인프라, 문화프로그램과 활동, 예술적 경관, 행정체제로 구성됨. 이중 문화 인프라는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문화유산 등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시의 문

화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을 매개로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제공되는가 하는 것임⁶⁾.

☞ 오늘날 공연장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공공재로서 인식하고 폭 넓은 지원정책으로 교육기능을 같이하여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연장의 공급은 사회적 판단, 정책적 고려, 예산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재로서 포용적 공연장 조성 역시 공공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도시의 문화와 환경적 가치로서 공연장은 도심의 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시설의 구축으로 도시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시의 이미지와 매력을 증진시켜 도시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포용적 공연장이 조성되면 부여군의 문화와 환경적 가치를 제고할 것임

3. 정책적 타당성

1) 공연장의 현대적 기능

- 예술(art)이라는 개념에는 재능(aptitude)이라는 예능적, 미적 의미도 있지만 장소(place), 기관(Institution)이라는 뜻도 복합적으로 들어 있음.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이 언급하는 공연장은 ‘높은 수준의 재능이 담겨있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이 반드시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조직과 집합체로서의 기능도 갖고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제작과정의 의미도 있음.
- 그동안 공연장은 재능이 담겨져 있는 장소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보다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 보고 있음. 즉 예술적 기능과 사회가 만든 유물,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정의함.
- 공연장은 인간과 사회,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고 확장된 이해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함.
- 문화예술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공연장의 지원에

6) 유원희(2008),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의 행정적 분석모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요약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미술관이나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문화의 집과 같은 문화시설보다 공연장의 비중을 더욱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연장은 지역의 상징성이 있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뉴욕 링컨 센터처럼 지역의 명물로써 시민에게 자긍심은 물론 이미지 개선, 지역의 상징성, 홍보효과 등이 있음.
- 둘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오늘날 신설되는 공연장들은 음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창작 활동 이외에도 아카데미의 활성화로 교육기능을 수행함. 또한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다양성 제고, 시민의식 발달의 역할도 갖고 있음.
- 셋째 공연장의 증가는 공연산업 발달로 이어져 고용 증대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연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대리 체험을 통하여 이해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함.
- 넷째 외부효과가 있다. 공연장이 창출하는 외부편익에 대해서는 프레이(B. Frey)와 폼메르네(W. Pommerehne) 역시 같은 의견인데 이들은 공연장의 가치로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증가치(bequest value), 위광가치(prestige value), 교육가치 등으로 분류하였음.
- 이외에도 국가정체성의 배양, 사회적 비판기능과 창의성의 증진,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적 수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2) 공연장 산업

- 공연장도 산업이라 표현할 만큼 경제적 규모가 커져 왔음. 그러나 공연장 산업이 첨단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동화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음.
- 공연장 산업은 생산성 향상의 지연으로 인하여 비용과 가격이 다른 재화의 비용이나 가격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음.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비가 점차 줄어드는데 반해 공연장에서 생산된 예술품은 현장성과 복제의 불가능으로 인해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연장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예술 상품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체험적 서비스임. 공연장 산업이 비록 이윤추구에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현실을 전혀 도외시킬 수는 없음.

- 공연장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데 이는 창의적이며 실험적, 예술적 작품을 제작하라는 의도이나 예산지원 기관, 공연장 평가기관, 의회 등 감독기관은 공연장의 수익성도 주목하고 있음.
- 공연장 산업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됨.
 - 첫째 가치사슬 구조를 갖고 있음. 공연장은 창작, 기획, 제작, 배급, 소비 등으로 구성되는 가치 창출 사슬 구조를 갖고 있음. 공연장의 가치사슬은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 정보사회의 변화와 문화상품의 생산재로서, 관련 산업과의 보완관계도 더욱 긴밀해 지고 있음.
 - 둘째 공연장 산업의 특징은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기량이 뛰어난 예술인과 숙련된 연출가, 무대전문 인력, 공연장 운영요원이 필요하므로 인건비 절감이 곤란함.
 - 셋째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음. 공연장 시장은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데 호주의 경우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가 호주 전체의 40%이나 공연예술비중은 80%이고 영국 런던의 인구는 13%이나 공연장 산업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음.
 - 넷째 과점적 형태의 시장지배구조를 갖고 있음. 소수의 거대 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들이 고용, 티켓, 관객 동원 등에 있어 과점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영세한 업체가 시장진입을 하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반증으로 호주의 경우 상위 10개 공연사가 연극을 제외하고 공연장의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음.
 - 다섯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 공연장 산업은 관객의 수와는 관계없이 초기에는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되나 관객이 늘고 장기공연에 돌입할 경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는 비용체감산업임.
 - 여섯째 생산성의 지체임. 새로운 공간 디자인, 음향기술 개발, 조명이나 무대장치의 발달 등 비용절감 요소가 산재해 있으나 공연물의 현장성과 복제의 불가능으로 생성에 한계가 있음.⁷⁾

7) 유원희(2008),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의 행정적 분석모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요약

- ☞ 공연장의 정책적 타당성으로는 공연장의 현대적 기능으로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임. 그리고, 공연장은 공연산업 발달로 이어져 고용 증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에 이바지함을 물론 외부효과와 지역 정체성을 배양하므로 포릉정 공연장도 부여군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임
- ☞ 특히, 궁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연계하여 지역의 공연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문화상품 생산재로서 가치사슬을 가지며, 공연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함 것임. 나아가 기존의 부여충남국악단을 중심으로 한 공연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공간의 디자인 개발과 무대장치의 발달과 백제역사도시에서는 새로운 공연문화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참 고 자 료

김은주(2011), “전통예술 전용공연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석사학위논문.

남양주시(2014), 「남양주시 북부권역-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
서」

부여군(2016), 「부여군 신관광마케팅 전략수립 연구」.

유원희(2008),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의 행정적 분석모형 연구’ 성균관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현진(2007), “전통음악 공연장 계획안 -인사동의 장소성 분석을 바탕으로
-”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왈(2013), ‘한국 전통예술 공연장 전문화 방안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기삼(2009), ‘자연과 연계된 전통국악 공연장 설계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
교 건축디자인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문예연감.

<http://blog.daum.net/mtbxc/674>